

“편견의 성채에서 벗어나라”

어느 ‘잉여인간’의 몽환적 독서편력

박일문 | 소설가

세상 인연 따라 살다보니 책도 손에 잡히는 대로 이런 저런 책 차별 없이 읽었다. 세광출판사에서 나온 《홀러간 노래 대백과》를 독서하듯 흥얼거릴 때도 있었고 《멋지다 마사루》란 만화를 들고 킁킁거릴 때도 있었고 식탁 위에서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요리책》을 꼼꼼하게 정독한 적도 있었다. 인생살이가 그러하듯 진리란 흐름과 변화의 개념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권위있는 철학 저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두어번 서재란 것을 가져봤으나 이사를 다닐 때마다 번거로워 서재란 것도 삼년 전에 정리해버렸다. 서재를 정리하니 책을 읽으려면 도서관에 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서재란 것은 자신이 관심 가는 분야만 수집한 편견의 성이다. 그래서 넓은 세상, 좋은 책을 접하려면 아무래도 자신의 서재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광장의 도서관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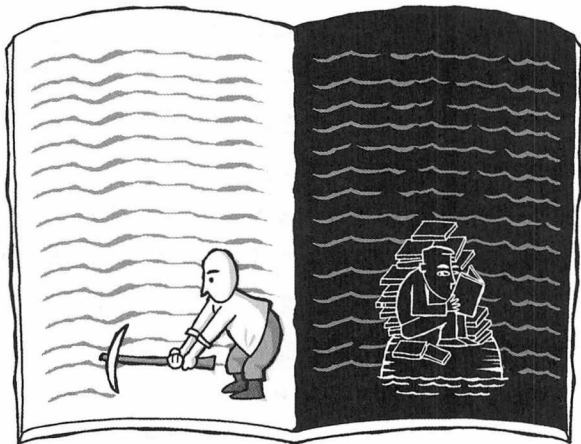
집 앞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반자가 고작이었는데 한강에 나가니 잡히는 것마다 한자가 넘었다. 우리는 좁은 도랑물에서 미꾸라지를 잡더라도 늘 바다를 꿈꿔야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도서관은 만화방 수준과 진배없으니, 사실 자신의 서재를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서재에서만 연구를 하다보니, 문학에서나 학문에서 넓이와 깊이란 것이 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소백산 아래 작은 읍내에서 보낸 아득한 기억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가에서 놀았으니 책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 현관에서 거실, 구석 방까지 책이 쌓여 있었으니 장난감이 귀하던 시절, 책을 뒤적이며 노는 게 일이었다. 소박하나마 아버지의 서재는 읍내 교사들 사이에서 도서관 역할을 해냈고, 나는 책을 빌리러 드나드는 한 여선생에게 연정까지 품었다. 늘 그녀를 생각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가 빌려갔다 가져온 책의 냄새를 맡고 그녀의 체취가 묻어 있을 책장을 들춰보기도 했다. 중국에는 그녀와 같이 살 집을 그려보고 그녀와 아이 몇을 낳을 것인지 상상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사회에서 무용지물이며 일가친척의 짐이 되고 가족을 괴롭히는 소설가란 잉여인간이 됐다. 이미 일가친척 어른들은 나를 말하길, 가담항설을 끌어모아 팔아서 살아가는 구류인간이라고 한탄하신다.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요조숙녀를 집밖으로 끌어내고 정숙한 부인에게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응졸한 사람에게 세상 구경시키고 경건한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내 직업을 잘나 잘나 저주하면서도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함은 마약중독자의 운명인갑다, 하고 자포자기한다.

대중문학을 주로 읽던 해병대 출신 마도로스 삼촌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 방인근·김래성 등의 작품을 접하며 어른이나 하드코어의 세계에 일찍 눈을 떴다. 파리를 배경으로 한 가로등이 있는 가운데 한복 입은 관능적인 여인의 자태가 표지로 나온 누런 종이의 성인소설은 지금도 나에게 최고의 에로티시즘으로 기억되고 있다.

소설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 나라 언어로 읽었다. 내가 최초로 읽은 원서는 1달러 25센트짜리 《데미안》이었다. 우리 가족이 살던 대구 대명시장 옆 제일책방에는 미8군,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캠프 워크나 캠프 헨리, 그리고 대학교에서 흘러나온 영어소설이 많았다. 거기서 《가프의 세계》《롤리타》《파리대왕》《구토》《시스터 캐리》《북경에서 온 편지》《제일버드》등을 읽었다. 언어묘사의 현란함 때문에 《웹스터 영영사전》을 들고 《롤리타》를 읽기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틈틈이 레이몬드 카버나 도널드 바셀미, 존 업다이크, 로버트 쿠버, 컷 보네거트, 존 어빙 등 몇 작품은 번역도 했다. 군 입대 전까지 그러저러 값싸게 사 모은 영어소설이 90여권이 됐으나 그때까지 읽은 책은 30여권 될까 말까 한다. 입대하면서 당시까지 모은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줬고 출가하면서 서재를 정리했고, 다시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불확실함 때문에 6천여권의 서재를 정리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찰나생 찰나멸의 인생 앞에서 나는 거추장스런 짐을 들어내서 한껏 가벼워지고 싶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사라지는 것과 허공을 사랑했다. 도서관의 추억보다는 유곽에 대한 추억이 오래 남아 있고 푸른 새벽의 추억보다는 노을만 봐도 삶과 우주가 기가 차도록 슬퍼져서 눈시울이 뜨겁곤 했다. 1982년이었던가. 일년 내내 서해만 바라보며 산 적도 있다. 일몰은 나에게 지상에서 가장 퇴폐적인 모습이었으며 스러지는 것과 텅 비어 있음은 나에게 심미적 전일을 끌어냈다.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기분을 주던 독서... 나는 지금쯤 어떤 섬에 떠 있는 것일까?... 하는 자각을 주던, 몽환적 기분을 주던 독서. 누구에게나 그가 살아야 하는 현실은 빛을 진 적도 없는데 무작정 갔으라고 목을 죄어오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을 것이다. 괴롭고 힘들 때 현실의 협박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도서관이나 책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문학이었고 철학 주변머리였다.

그 인식의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도달하는 곳이 결국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세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세계다. 그래서 점점 더 나아가면 마르크스의 목적론과 노자의 '무위의 위'가 원인도 목적도 없이 만나거나, 마오쩌둥의 호상작용이나 붓다의 연기론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거나, 결국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와 만난다. 또한 의식도 물질이 전화된 한 형태이니 유물론이 곧 유심론의 세계와도 통한다.

독서자들이 도달하는 세계는 결국 깊은 회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회색의 늪인 것이다. 내가 도서관에서 도달한 세계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세계였다. 그래서 그 혼돈으로 괴로웠으므로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독일관념론보다는 영국경험론에, 그리고 공리주의에 친근하게 됐다. 어떤 절대적 판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기하고 유효하는 그런 세계는 오히려 진실되고 따스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신앙인이 편하지만 불편함을 주는 회의주의자를 더 믿는 편이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대부분의 책을 아늑한 서재나 도서관에서가 아니라 길 위에서 읽었다. 《향연》이나 《사기》, 《논고》나 《탐구》의 영어판이나 2차저작물도 버스나 기차 안에서 읽었으며, 세권짜

리 《세계철학사》나 열권짜리 《세계철학사》도 터미널 나무의자에서, 혹은 여인숙 카시미론 이불 위에서 읽었다. 바람을 쐬어지고 다니며 읽던 《돈오입도요문론》《임제록》《벽암록》 등 선종 관계 저작들도 내일이면 떠나야 할 불안한 절간에서 읽었다.

독서에는 역시 어학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 들어서 어학을 새로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어학은 세계 이상은 자신이 있어야지 성실한 독자가로서 문필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학에 자신이 없다.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 배웠고 대학시절 독서강독 시간에 칸트나 헤겔 원서를 읽었으나 번역서를 대조하지 않고 원서를 읽는 것은 나에게 버거웠다. 80년대 중반에는 마르크스의 책을 일본판으로 보려고 대성학원 일본어교재나 지양사에서 나온 일본어독본으로 3개월 정도 독학했으나 아직 일본어판 원서를 읽기에는 많이 모자란다. 그러니 사실 독자가로서 작가로서 학문 종사자로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근래 일년 가운데 그 반은 도서관 서고에 파묻혀 하루종일 책만 읽을 때가 많다. 사람들은 참 좋은 팔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다. 독서를 하다보면 이것도 삶인가 하는 회의가 찰나 찰나 든다. 나는 나의 생이 꿈인지 환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모름지기 언어기호란 상징체계를 다루는 영역의 상징화된 삶은 육체의 피비린내 나는 삶의 영토와는 떨어져 있어서, 삶이 그저 비몽사몽이다.

하긴 어떤 삶이 비몽사몽 아니며 모든 것이 헛된 '장미의 이름'이 아니라, 독서를 주로 하는 직업,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상징체계를 재생산하며 살아가는 직업이란, 사변의 높은 탑 위에 자기기만적으로 살아가는 가증스럽고도 안타까운 자기모멸의 직업이다.

책을 읽거나 쓴다는 일은 상징적 기호체계를 다루는 일이라 너무 좋아하면 삶과 노동의 일차적 건강함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장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좋은 서재를 가지고 있다거나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실은 부끄러워할 일이지, 내놓고 자랑할 일은 못된다. 한편의 책이 한줌의 흙보다 향기롭지 못하고 약간의 지식이 밥 한그릇보다 따스하지 못한 법이다. 그러니 책은 숨어서 읽어야 하고 공부 역시 부끄러운 일하기에 숨어서 해야 한다. 현실을 떠나서 책만 보며 관념의 숲을 거니는 일은 시시때때로 반인륜적 행위를 결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자였나? '위학일익(爲學日益)이요 위도일손(爲道日損)' 이라. 노자뿐 아니라 모든 성현들이 책 읽은 일과 인간 되는 일은 궁극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이 세상 도처에서 내 쉴 곳을 찾아 보았으되, 마침내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더 나은 곳이 없더라"는 예코의 말을 지독한 개인주의자의 말로 해석한다.

지난 3년 동안 행복에 대한 동서양의 저작을 읽으며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나는 무릇 지식이 많은 자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자를 보지 못했다. 책 역시 과유불급인 듯하다.' 그래서 내가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책은 불가에서 수행자들이 읽는 《초발심 자경문》이다. 한편이 섭섭하다면 사미승들이 배우는 《치문경훈》을 추가한다. ●